

특허청,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

- 세종대, '24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173억원으로 국내대학 중 1위 -
-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8. 22.(금) 15시 30분, 세종대학교(총장 엄종화)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,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,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.

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(R&D)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, 지식재산(IP) 고도화 전략 수립,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,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'24년 기술이전·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*에 오른 바 있다.

* 출처: 대학알리미(academyinfo.go.kr)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·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세종대학교 현장방문 개요(사진은 행사 후 배포)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산업재산정책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| 책임자 | 과 장 | 유용신 (042-481-354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전상우 (042-481-5406) |

□ **현장방문 개요**

- (목적) 대학 중 '24년도 기술이전 수입 1위를 기록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등 수렴

* '24년 대학교 기술이전수입 순위 : 1위 세종대(173.6억), 2위 경희대(97억), 3위 카이스트(82억)
(출처: 대학알리미)

- (일시) '25. 8. 22.(금), 15:30 ~ 16:50

- (장소) 세종대학교 집현관 10층(서울 광진구)

- **대학개요** : 1940년 설립된 종합사립대학으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전문화하여 R&D 전주기에 이르는 우수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특히 동영상 코딩에 관한 표준특허로 대형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
- **특이사항** : '24년 기술이전 성과 173.6억으로 전국 대학 1위 달성

□ **주요 참석자**

- (특허청) 특허청장, 산정국장, 아이디어과장, 특허제도과장 등
- (세종대학교) 엄종화 총장, 송형규 연구부총장, 권현한 산학협력단장 등
- (한국특허전략개발원) 윤병수 원장, 배홍선 특허전략확산본부장 등

□ **세부 일정(안)**

| 시 간 | 주요 내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5:30~15:40 (10") | ■ 세종대 도착 및 간담회장 이동(집현관) | - |
| 15:40~15:45 (5") | ■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| |
| 15:45~16:05 (20") | ■ 세종대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 | 세종대 산학협력단 |
| 16:05~16:50 (45") | ■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| 참석자 |